

SERIAL

Hak saeng HOEJI

no. 14

14

# 학생회지

JAN 17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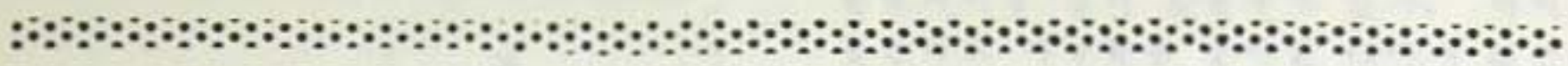


제 14호

1978.12

화싱톤주 한국학생회 발행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쫓	점		1
논	단		
	학생회를 위한 제언	박 건홍	2
시			
	가 을	김 용수	4
	신입회장 소감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정 종환	4
又村	칼럼		
	어불성설(서창섭어의 하나)	서 두수	5
	특별기고		
	먼저, 참된 인간이 되자	이 형상	6
시			
	후 일	김 혜화	7
	수 필		
	가치없는 이야기들	김 세용	7
	신입생 소감		
	유 학	최 윤정	8
	햇 병아리	오 승향	8
	전공순례		
	Business Administration	이 영인	9
시			
	기 도	서 정란	9
	취미란		
	스 키	이 용명	10
	소식란	편집부	11
	독서안내	최 윤환	15
	회원주소록	편집부	15



타코마 지역에서 발생한 몇건의 한인 총격사건을 고집은 피해들 타임즈 외 한 칼럼란이 한인사회의 생각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불의를 일으켰다. 어느 사회 집단에도 일어날수있는 폭력사건을 유독 들추어 내어 극장 보도만 태도가 신중해야 할 언론의 자세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할수없고, 한국사람을 동양의 폭인에 비유하는 등 - 비록 한인 피해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 무책임한 어휘가 우리들의 본개를 자아내는 그야말로 피부적인 자극제가 되었던것같다. 한 칼럼니스트의 편견이나 혹은 무분별에 대하여 담백함을 하고 경중을 울려야 하는 필요성도 바로 이런 기사도 한국에 대한 범죄, 폭력형의 ethnic stereotype 를 미국사회에 심게 될기 모른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 때문이다. 타임즈지에 대한 학생회 담의문은 이번 췌지에 실려있다.

타임즈지를 상대한 고소가 지금 계류중이고 함의 부서도 아직 계속 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작년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좌 폐지함의 시위에 이어 이곳 한인 커뮤니티가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기피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수 있을것 같다. 오컨데 한국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갖는 길은, 개 개인이 모국을 떠나 신천지에 살려온 이민 외국인으로서는 생물학적·자연적 존재 (Korean in itself) 에서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민으로 구성된 미국의 다인종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기의 특성을 구성해가는 의식 집단 (Korean for itself)

이 될때 비모소 가능하다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기사를 읽은 많은 한국사람이 당연히 느낌 모욕감이나 산발적, 육감적인 본개를 넘어서 이번 사건이 제기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와, 그리고 아마 훨씬 직접적으로 얻을수 있는 실질적 성과는 이번 사건이 한인 사회의 자기 의식, 이미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단결된 행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데서 찾을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가지 미흡한 점도 지적할수 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 하루하루 여유없는 이민초기의 태다수 사람들의 관심을 기대하는것은 어렵다 지더라도, 좀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유지 급인사(?)들 사이에서도 단합된 대처가 모자랐다는 얘기도 들린다. 도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맞아 한인회 등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 이슈를 주지시키고 연관된 문제를 토의 해보는 기획을 가질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점도 아쉽다.

기사의 불비가 된 몇가지 폭력사건이 타코마 지역의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부분적인 현상도 엄연한 사실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마 언젠가는 이곳에서도 대두할 이민사회 청소년 문제의 일부로서 생각할수 있다. 낯설은 이국 문화에 이식,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한국 문화속에서 자라나고 굳어진 1세들의 의식과 습관은 세대, 그리고 2세, 3세의 고민은 차이가 있고 각 세대의 문제는 다를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사실상 많은 1세들이 젊은 세대의 문제를 경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옹고와 김책이 젊은세대들의 고민에는 적절하지 못하거나 이해될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나하는 인상을 받을때도 있다. 그러한 결국로 폭시라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 중에서 한국말이나 영어 어느것으로도 자기 표현이 되지않고 두텁한 삶의 목표설정, 사고력의 개발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데 깊은 관심을 갖는 1세의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지도 스스로 물어볼 기피일것 같다.

불미스러운 폭력사건이 한인사회의 지극히 미세한 부분이라고 그릇된 기사를 고정해 주는것이 중요한 만큼, 또한 내부적으로도 자라나는 세대의 장애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때 앞으로 꼭 이런 기사가 나올 소지 조차 미련에 방지하는 길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학생회를 위한 제언-



박 건 통

지난 수년 동안 학생회주 한국학생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10년전에 불과 2,30명 정도에 불과했던 학생회는 이제 거의 200명에 이르는 직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몇년전만해도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모임이 지금은 고교자녀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도 발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회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변화란 새로운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현상속에는 새롭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회에 문제점이 없을수 없다. 학생회가 앞으로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학생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부터 생각해 보는것이 순서일것 같다.

결론부터 말해서 나는, 오늘날 우리 학생회가 안고있는 문제를 크게 한마디로 내부적 갈등 (internal conflict)이라고 요약하고 싶다. 예를들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A: "이제는 언더 (학부학생)가 학생회의 리더쉽을 잡아야 한다. 언더의 숫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것을 보라. 나이많은 대학원생들은 겉핥기만 하면서 말로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런식은 이제 버리고 뿔뿔 신나고 확근하게 해 봐야 될게 아니냐? 미국에 살고있는 이상 쾀쾀한 한국식 생각은 버리고 어기식으로 입술해야 된다."

B: "아니다. 그말에 일리가 없는건 아니지만 언더들은 아직도 경험이 적고 일을 원만히 처리해나갈 능력이 부족하다. 쾀곳이 언더들이 학생회를 쾀어잡고 신나고 확근하게 해 보겠다고 고집하면 말릴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회는 두쪽으로 갈라질수 밖에 없다. 자마리 그게 더 좋을지 모른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A와 B는 지금 학생회 내부에 존재하고있는 두줄기의 생각과 태도를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 두가지 생각은 적어도 감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엇갈린채 평평이 맞서고 있는것 같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조용히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회 구성 멤버 사이에 존재하는 두두러진 연령차이를 들지 않을수가 없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문을 들어선 10대의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면서 반평생을 보낸 40대의 "노학생"들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 세대이전의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같이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대이전 갭이 있는 곳에서는 사고방식, 취미, 생활양식등의 차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더구나 오늘날같이 급속도로 변천하는 세상에서야 그 차이가 때로는 건너기 못할다리 만능이나 심할수도 있다.

둘째, 지금 학생회의 머코리미를 이루고 있는 "젊은층"들은 대부분 고교 자녀들이다. 이곳 미국사회에서 정착하고 미래를 찾아야하는 이 "젊은층"들은 자기의 생활을 미국적인 가치체계와 사회시스템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보다도 그렇게 느끼기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후 이곳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미 미국 문화와 생활양식을 익힌 사람들이 많다. 반면 소위 "늙은층" 또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이라고 불리우는 층은 적어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후 상당한 기간까지 한국 등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적인 사고방식, 행동양식에 습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두구름이 서로 만날때 나름대로의 생활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커다란 차이가 들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러한 양쪽의 차이를 가다듬고 조절하면서 다리 역할을 할수있는 메카니즘이 학생회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학생회의 부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지만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내면적으로 소화할수있는 조직이나 활동이 별로 없었다. 가령 신입생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킬수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던 일도 없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활동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기획도 별로 없었다. 또한 각 그룹간의 의견차이를 조정할수있는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의해보는 지성적인 대좌도 공식적으로 가져본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년에 2,3번 정도 있는 정기총회, 신입생 환영회, 망년회 정도로 대학의 다리를 만들기는 극히 어렵다. 한마디로, 차이와 갈등을 없애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없는채 학생회원들 각자는 뿔뿔이 또는 끼리끼리 어울리게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것인가?

우선 이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으로 나는 한가지 대안제를 내세우고 싶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갈등"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에게 자유가 부여되고 있는한 사람들이 서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수는 없지 않는가? 의견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건 이유가 어쨌건 당면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우선 수긍을하고 넘어가야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갈등"이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일수있다. 갈등이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면에서 서로 부딪힌다. 부딪치기때문에 경쟁도하고 창조도 하게되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것이 아닐까?

감동이 없는 사회는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을 것이다. 잠잠이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힘차게 흐르는 물을 보라 세계 부디칠수록 물살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소용돌이 치는 물도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도착하여야 할 국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부디치는 국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곳으로 흐를수 있게 학생 피를 움직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감동을 숨기거나 그늘속에서 남을 고집하는데로만 발전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밖에 들어 내놓아 서로 부디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부디칠 때는 반드시 대좌 토론이 따라야 한다. 대좌란 서로를 알리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의 표시이며, 토론이란 문제의 해결과 앞으로의 공동방향을 찾으려고 힘쓰는 형태이다. 대좌가 없는곳에는 싸움만 있을 뿐이며, 토론이 없는곳에는 본리와 단결만 계속될 뿐이다.

이러한 대 전제하에서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몇마디 하고 싶다.

우선 나는 지나치게 자극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위 "노학생"들을 포함하는 대학원생층에 먼저 한마디 제안 한다. "젊은층"을 이해 하려는 폭넓은 아량을 가져 주기 바란다. 연령, 인생에 체험, 학구생활의 경력으로 볼때 "노학생"과 "젊은학생"사이에는 세상을 보는 시야와 사고의 깊이에 비고도 안될만큼 큰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수가 없다. 그러나 둘은 모두 같은 때우리 현실속에 살고 있다. 소박한 마음으로 다같이 학생이라는 입장을 인정해야 될것이다. 이유야 어찌던 같은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학생 피를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것은 어쩌면 심각한 자기 모순일찌도 모른다. 한걸음 더 나아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 젊은학생들 가운데에는 고차되는 문파적인 감동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것 같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앓고 헤매는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삶의 Perspective 를 형성해 주는데 지적으로 성숙한 선배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또한 학생 피의 크고 작은 모임에 가능한한 몸소 참여하여 젊은이들의 활동을 격려해주고 필요할때는 학생 피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해야 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학원 층들의 "무관심 한다"든가 "굴심거리며 모셔가 주기만 바란다"등의 그릇된 인상을 지우면서 학생 피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못지 않게 "젊은층"에게도 강력히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늙은층"에게 처음부터 배타적인 거부나 반항심을 갖지 말고 기뻐 있는대로 접근하여 외는하면서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늙은층"에게 비우라는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을 통째로 다 물려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곳 미국의 동토속에서 어릴때부터 자라고 살면서 자신의 환경을 무시하고 한국적인 것만을 배운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반드시 바람직한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나가신의 중요한 일부분이 한국인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문파에 적용하고 미국사피에서 경계를 틀고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내가 Korean-American 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를 박고 미국이라는 공기와 기후속에서 자라고있는 만그루의 생생한 나무처럼 자신을 인식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할것 같다. 양쪽에 다 걸쳐 있으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양쪽다 단단히 소속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할때는 장려가 빠다. 네 부모의 세계와 내가 살고있는 현실의 세계 - 이 두세계가 네 몸속에 네 정신속에 굳건하게 융착되어 자리잡고 있을때 내가 가진 우주는 얼마나 넓은것인가?

E Pluribus Unum(from many to one), "젊은층"들은 이말에 무조건 매혹 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기 바란다. 미국사피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파가 서로 어울려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말이 뜻하는것 처럼 그 다양한 요소들이 다 녹아서 한가지 단일한 체계로 된다는 믿음속에서 한국적인것을 버리고 전형적인 미국적인 것만을 흡수하려고 노력할때 얻는 실망은 클것이다. 전형적인 미국인이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적인 인간을 말한다. 우리가 얼마나 WASP 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가는 극히 의문이다. 아무리 미국 풍토에 젖어 있어도 우선 우리의 얼굴, 우리의 피부색같이 WASP를 만들어주지못 못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때부터 사피이념으로 만들어졌던 E Pluribus Unum 이란 뜻은 결국 미국에온 모든 사람들(pluribus) 이 한가지 지배적인 WASP 적 인간(unum)이 될것이라든가, 되어야 한다는 문파적 위압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그동안 똑같은 서구문파를 바탕으로 하고있던 Anglo-Saxon 중심주의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흑인이 민권을 얻고 건테없이 수많은 인종, 문파집단이 물려들어온 지금 미국사피에서 이 이념은 버릴수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인의 이민시대도까지 문을 열어재킨 지금의 미국사피는 오히려 다양한 인종과 문파가 mosaic 같이알록달록한 여러가지 색깔이 조파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이념이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WASP 가 될수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백인에게 배타심을 가지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백인이나 다른 인종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동등한 지위를 갖으려할때 자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존심을 가질때에만 나와 다른사람과의 관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존심이란 바로 한국인의 뿌리가 있다는 주체 의식이다. 달리 말하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때 비로서 우리는 미국사피에서 활기와 박력을 가지고 자신있게 창조생활을 해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층"이 이와같은 주체 의식을 가질때 모든일에 자신과 활력이 생길것이라고 본다.

"늙은층"과 "젊은층"이 서로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생 피에 임하게 될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수 있을것이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때 다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외는하는 본위가 형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모임때, 의견이 서로 다르고 마찰이 있을지라도 토론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다루고 알일을 계획할수있게 되

면, 나머지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뛰어난 각층 또는 각 그룹간에 경험, 능력, 재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들 대표하는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각 그룹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가운데 서서 이를 잘 연결, 조정 할 줄 아는 능력자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학생회는 갈등을 안고 출범한데서 '안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해소할수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대화와 토론을 자주 갖는 길이다. 때로는 의견이 심하게 충돌되더라도 함께 만나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방향을 모으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를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학생회들 대할때 학생회의 존재가치가 다시 발견 될수 있으며 그러므로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도 쌓을수 있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 자: U.W. 정치학대학원)

## -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확실히 학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책임을 질감하며 학생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창립된지도 어언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창립당시 이삼십명의 회원에서 이제는 200명 이상을 포용하는 어엿한 학생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회원및 고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였다는 것을 생각할때 다시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조국과 고교사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있는 두런한 증거인것으로 믿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람되나마 본인은 학생회장으로써 저희 학생회가 명실을 공히 갖춘 확실히 학생을 대면하는 조직으로써 학생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조국과 고교사회의 발전에 공헌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바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써는 불가능하고 회원여러분과 고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학생회가 여러분의 학생회라는 것을 랑상 명심하시고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상 저희 학생회원은

학생에만 국한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생회가 한국학생회가 아니고 확실히 학생회라는것을 아시고 타대학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어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함께 모여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고교여러분께서도 저희 학생회가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들의 모임인것을 아시고 아낌없는 힘과 지원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이 발전할때 우리 고교사회의 발전의 배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원 여러분의 학업의 정진과 고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학생회장 정종관 배

## 시

### 가을

김용수

가을은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저 높은 하늘 밑에

우거진 숲속에서

나는 잔디위에 누어 잠시 생각해봅니다.

"아버지에, 저 멋진 단풍쯤 보이소, 참 멋있지?"

가을은 말이 살피는 계절입니다

반짝이는 별빛아래

귀뚜라미 종알거리는 정원에서

나는 잔디위에 누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 저 둥근 달쯤 보이소, 참 맛있겠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시들어가는 저녁 노을밑에

시원히 스쳐가는 가을 바람안에

나는 잔디위에 누어 잠시 생각해 합니다.

"아버지에, 저 아가씨쯤 보이소, 참 예쁘지?"

"이녀석아! 정신차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알았습니다!!!!"

(원 자: U.W. 학부 2년생)

어 불 성 설 (語不成說)

- 서창섭어(書窓語)의 하나 -

서 두 수

중국 당나라때의 사람 두보(杜甫)의 상대한 양의 시를 우리네 옛 이들이 자기들 말무로 옮겨 놓을때 어떤 모습으로 뒤고 있는가를 보고있는 요즈음 우리네 선인(先人)들이 어찌면 그다지도 다사롭게 한 외국인의 시정(詩情)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자기들 말로 옮겼다가 보다도 좀 힘주어 말하면 한갓 역시(譯詩)의 경역(境域)을 벗어나 한 창작시 인양 착각시키는 것을보고 있다. 내가 하바드 대학 재직시에 의경(畏敬)하던 한 노동로(老同僚) 중국학자 송선생이 그가 영역(英譯)한 두보의 시를 아담하게 장정해서 만든 한권을 주어서 탐독(耽讀)한 일이 있었는데 한시(漢詩)의 영역이 그리 쉽지 않은것을 새삼 느낀일이 있었다.

근자(近者)에 다시 세도 일역(日譯)의 그것을 우리의 두시언해(杜詩諺解)와 비교해 보았을때 무언가 일기(日記)에서 빠진것이 우리 선인들의 역(譯)에서 요구된것을 찾게되어 계몽됨이 많았다. 시간적으로 이 언해본(諺解本)은 두세기나 앞선때에 이미 상재(上梓)된 것인데 그속에 자유분방히 구사된 언어미는 짜장한어(韓語)의 정수(精粹)인 것이 많다. 우리 선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옮겨 놓은 것이 미쁘고 애롭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두보의 한어시(漢語詩)를 자기네 말로 살려 있는 품이 나모하여금 예사로운 일모만은 보지 않게 한다. 무엇이고 진정 좋은 것이라면 우리네 선인들이 굴뚝이 그것을 자기네의 혈맥속에 뛰어 살게하는 일에 용색하거나 구차(苟且)하길 않는것이 다시 보여진다. 미국대학의 한 연구실에 그 대학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풍상(風霜)을 겪다보니 이제 백안 백안(白顏碧顏)이 뒤물고 있는 서양대학에서 고색마져 창연하나 어엿이 미소로 그들의 기구(嶠峴)한 운명을 뜻아 구김살 지어 걱정하지 않고 있는 날아 해지고 꺾려져서 두평된 목판본(木板本)이 등기는 시대의 넘새조차 푸근한 한문(韓魂)의 말이 넘실거리는 품이 뒤고 있는 내가 내 나이조차 착각할 정도로 뒤물아 가고 만다. 이 언해 중간본(諺解重刊本)의 권삼(卷三) 심월장(心月堂)에 담긴 백년종만사 고국경난망(百年從萬事 故國耿難忘)이 남의 것으로 뒤여지길 않는다. 우리 선인 번역자는 자기들 말로 부드럽게 옮겨 가온 「백년내에 만사를 무던히 너기가 마몬 네사던 디 별 무수 매兢兢(耿耿)야 니조미 어렵도다」 라고 옮겨 놓고 마는 품은 오늘날 우리네가 우리네 말 땀시에 대해 지닐 자세에 한 시사(示唆)를 던져 주기도 한다. 우리네 선인들이 많이 한문을 옛 중국 사람 못지 않게 능감(能堪)이 구사(驅使)하고 있어 조선(朝鮮)시대에 있어서도 일찍 중국땅에서 한토(漢土)의 이러한 이들이 지은 한어시집(漢語詩集)을 생면부지의 그땅 시인들이 감탄해 상재반포(上梓頒布)까지한 문의(文誼)조차 예뻐이 나눈일이 있어 오늘날의 젊은 학도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에 속피이 예를 언종월(諺風月)에 든다. 다아는 풍월조(風月調)로 자기들 속된 생활을 시상(詩想)으로 승화(?)시키는 도발이 구수하게 만만(韓漢)어귀 「섞어작(作)」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찾으면 용당 상당히 많음상 싶다. 마냥 일소(一笑)에 부지기에는 너무나 한어적(韓語的)표현이 한시형(漢詩形)을 빙자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수 있을것 같다. 갈아는 것으로 이룰때면 보리밥 한그릇 모도식(食)하고 방기(放氣)탕탕 석양풍(夕陽風)이라고 하면 구린내는 원거천리 속거천리(遠去千里 遠去千里) 사라지고 만다. 가가(呵呵). 우리네가 오는날의 문탁잡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잡지 등에서 까지 간간히 볼수있는 새 조어(造語)경담은 적 바람직한 동기이기는 하나 어떤 말은 그 쓰임쓰임이 문법적 기능으로나 표현하려는 어의(語義)가 적어색한것이 간혹 눈에 띄이곤 한다. 문탁잡음 특히 시각(詩作)에 있어서 보여주는 생경(生硬)은 다소 생각하여 무방할것 같다. 과립침람이라고 하고 슬리킹 밖의 한 종류가 지칭될 것만도 아니고 학생글씨 쓰기대피가 학생취도(學生揮毫) 대피도만 이름 되어져야 할것도 아닌상 싶다. 어귀의 금 작스러운 근대화(近代化) 인지 모르나 차분한 언어기능 알아 무방할것도 같다. 섞어(諺語) 감고대를 나는 하는것 같아 붓이 더 들지 않는다. 방언다사(方言多謝).

- 1978년 11월 28일 -

- 먼저,

참된 인간이 되자-



이 형상

청년 학도들은 국가, 사회의 심장이라고 한다. 청년 학도들을 보아 그 국가, 사회의 장력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청년 학도들이야 말로 장차 국가, 사회의 희망이요, 중추적 구실을 담당할 동량재임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청년 학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 사회의 흥망 성쇠가 좌우되는 것이기에 학부모님이나 기성세대와 학생에 대한 기대감이 지대한 것이다.

또한, 학생 시절은 인생의 봄이요, 청춘이요, 황금기라고 한다. 이 귀중하고 값진 시기를 재인식 해야 한다. 항상 푸른 이상을 지니고 하늘을 날듯한 기상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며 구여됨없이 씩씩하게 배우고 익히며 생활해야 한다.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기성세대에게 항상 기쁨과 희망을 은은히 풍겨주는 살찐 생활이 되어야 한다. 자칫 열길도 밟을 내딛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서는 안된다. 방황갑각을 잃거나 목표를 잃고 일시적 탐탁에 도취, 방황하다가 목적지까지 내달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지대함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과 상대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15년간 일선 중·고교에서 젊은 학도들을 가르치고 길러온 지난날의 감회가 새로워 지는가 하면 지난날 나 자신의 학창시절이 떠오른다.

그럭저럭 근 20년이 되어가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생하다. 아름들이 주라타나스가 양편으로 준비하게 되어선 고문을 들어서 노라면 우측 언덕에 놀다랴게 세워졌던 고문탑.

스승이 되기전에 먼저,

참된 인간이 되라

는 글귀다.

이 문을 드나들며 사도를 익힌 젊은 학도들은 항상 생활에서 참된 인간이 되려고 애썼다. 내 자신이 그릇된 인간 건전한 사고력,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지 못한 스승이 되어서, 위선적 사도를 지향할때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도들에게 미치는 곡오 지대하며 국가적 사회적 장애가 암담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었다. 정말로 값있는 이 고문 밑에서 배우고 익히며 자랐던 탓인지 본국에서 국어 국문학을 교수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헛됨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싶으나 알수 없는 일이다. 이제 청년학도 여러분들께 선배의 입장에서 "먼저, 참된 인간이 되려는 이 길도 이끌고 싶다.

푸른 이상을 지니고 배우고 익힘에 남보다 게으리 하지 않을 여러분들, 우리한국의 학도들, 의사가 되겠다, 기사가, 학자가, 법학도가, 혹은 사회 사업가가, 내지 사회적 조그만 분야의 기능을 담당함에 앞서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다음 몇가지를 곁들이 부인 하겠다.

첫째,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를 알고 남을 알아 싸움에 승리할 준비만 하자는 것

이 아니요, 인간 사회에서 원만극 성공을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 자신의 위치를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국제사회인 여기, 이사회에서 의나(우리) 도서 반만년 문화 민족의 배달 거래의 무손이요 앞으로 이 문화 민족의 대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잠시 명심해야 하는 짐과 짐게 보아 나의 현실의 주위, 내 개인의 생활, 직장, 학원 기타에서의 인간 관계를 생각한 상호간의 위치인 것이다. 비록 영어를 잘하고 미국식 생활방식을 습득 실행한다손 치더라도 나의 근본은 한국인 이기에 누가 나를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보아주지 않을것이다. 땀땀한 나, 한국인의 긍지를 지니기 위해 좀더 나(우리 조국)를 알고 근본 이념이 뚜렷한, 주체성을 지닌 내가 되어야 한다.

둘째, 검양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

항상 겸손함을 알고 양보함을 알아야 한다. 큰이름 양보만이 미덕이 아니라고 하나 우선 겸손한 태도도 양보할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진행내지 발전이 빨리오는 법이다. 배우는 청년 학도로서 다루기에 앞서, 겸손한 자세도 양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회 각 기능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험기 왕성만 믿고 투쟁만 일삼지 말고 양보하면서 생각해보는 생활태도를 익혀야 한다. 양보가 함복을 의미하지 않고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 문명의 소치인 미덕을 살려 후배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실록 무슨 모임에서나 어떤 행사에서 겸양을 잃은 자가 있다면 그는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요, 군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것이다. 특히 우리 청년 학도들 중에 자신의 처지를 분별 못하고 오직 자기만이 갈난채하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되겠다. 자기보다 연장의 어른까지도 아랑곳 없이 예의를 망각하는 불손의 망난이가 있어도 안되겠다.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생활태도, 남을 나보다 먼저 알세우는 사고 방식, 그리고 나를 낮추면서 사회 집단에 끌고 들어가는 생활철학들이 아쉽다. 좀더 다듯하고 확기에애한 본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의 본인의 자매 그대모를 감추지 않는 검양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

셋째, 협동·봉사의 정신을 갖자.

여기의 협동·봉사는 건담의 검양극 상동한다고 보겠다. 어떤 하갈것 없는 모임이나 그물내기 사회 생활에서도 입을 합쳐 큰힘을 만들어야 하며, 남보다 앞서하는 봉사정신이 필요란 것이다. 나아가 민족적 사회나 국제적 사회 생활에서도 협동하며 봉사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져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게 될것이다. 오직 나만, 나의 가족만 나의 친구만 잘 편안히 지내겠다는 사고 방식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시켜 중국에 가서는 자신마저 고립되고 나오되며 무피하는 실패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가까운 눈앞의 개인적 실리를 떠나서 단체의 복지를 염원하는 장구한 미래를 내다보는 협동극 봉사 정신을 내가 지니고 우리 후배들에게 심어주어 영광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앞날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우리 청년 학도들에게 이 정신이 더욱 필요 하다. 어쩌다가 중요한 지도자적 위치에 섰다고 하여, 어차 피원이나 구성원은 의식 못하고 오직 자기만, 주위의 몇몇 인접 분자만 생각한다면 그사회 단체는 물론 자신에게도 많지 않은 남의 불행울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깨어질수없는 몽침,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융합된 견고한 모임,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협동·봉사 정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

른다. 농물양상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인간 관계의 원리를 위해서도 이 정신은 절대 불가결의 요인인 것이다.

이상, 배달 본파 민족의 우에오 계승의 중추적 직분을 맡은 한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오약 강조하고 싶음은 국제적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의 근본을 아는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 한 민족은 물론 국제 인류 사회적 공영에 이바지 할수있는 역군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상 뚜렷한 목표를 인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명감을 명심한 참된 인간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간구하는 바다.

79년도 한인회 부회장

(필자: 현 한국 국어 교육회 회원)

- 후 일 -

김 에 파

어둠이 짙인다.  
우리 귀멀고 눈멀어  
어둠을 바라보자.

씩- 하게 밀려오는  
아얀 빛의 삭락함이 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밤내음을 호흡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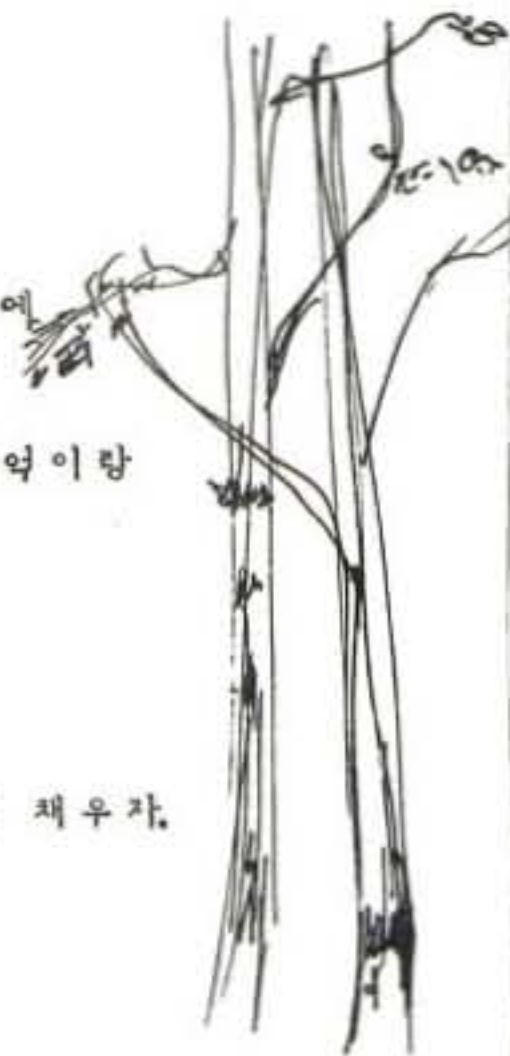
흐름속엔  
맑은 사람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심복을 이고있는 밤하늘에  
마음속에 고여있는  
먼 어제의 아픔이랑, 추억이랑  
전부 토해 버리자.

우리의 마음속엔  
오직 굵고 영롱한  
아름다운 꿈만으로 가득 채우자.

어둠이 짙인다.  
우리 귀멀고 눈멀고  
어둠을 바라보자.

(필자: U.W. 학부 2년생)



주 필

- 가치 없는  
이야기를 -



김 세 용

구운 오징어처럼 말린 낙엽들이 어수선하던 캠퍼스를 하얀 첫눈이 산뜻하게 단장했다. 생각하기엔, 낮은 들의 편백 눈길 시크럽고도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캠퍼스에 놀러온 어린 애기들의 울음소리 또한 추워지는 날씨 때문인지 저쪽들 기리의 이상문에 사로잡혀서 먼 하늘을 웃기기도하며 캠퍼스의 산책길을 자기들만의 독점 인물인양 혹은 인간세계가 싫었던지 아무도 다니지않은 편 눈위를 무슨 위대한 발견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발자국을 남기는 젊은 아베크족 외엔 낙엽, 한비와 백설이 온 대지를 덮을뿐, 셉티멘탈 해진다고나 할까? 이유도 없이 인생이 고달프다고, 확실한 자기의 주관도 없이, 가치관을 세우려고는 하지않고, 멋대로 지껄어대는 젊고 강하고 그러면서도 약하고 가엾은 일 그리고 살인침들. 그래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아니 인생의 나오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명랑, 그 자체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그네들 세계에서만 통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귀질을 목청이 터져라 노래부르고선 가망성이 있다고 혼자 좋아하며, 자기머리 위를 지나는 무상한 하루에는 보지 못하고, 아니 영영 볼수가 없었던 것이다. 외롭고 온 몸이 오그라 들때면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날들의 추억이 하나, 둘 살아나는 기쁨과 기억의 역사를 신이 부여한 판단력을 가지고서 생각의 공상을 하면 원인 모를 한웃음이 절로 나온다. 놀고 두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음인지 머리를 땅에 털구곤 뭇생긴 눈덩이 하나에 시선을 멈춘다. 깎아들고선 던질건지 한편으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편히 알면서도 하나의 미련을 버리려는 희망으로 던져본다. 고달프고 기뻐던 나날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무명의 1년. 육체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심호흡을 몇번하고 나면, 생의 보람을 느끼며 튼튼한몸, 또렷한 두눈 그리고 맑은 정신만이 활동하는 중성만 겨울을 맞보았던 옛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들 찾아 방황하는 김시가 될까보다. 부정 하고만 실은 심정, 받은 칭도도 없는데 어느듯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졸업장이란 가치없는 논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나, 우리 그리고 삼인침들. 공허한 웃음소리에 들논이 없는것과 비웃는건 이유없는 사실이고 위대한 생활을 했다고 공공성이 없는 말만을 지껄어대는 어지러운 피비 쌍곡선 속에서도 우쭐도 낙관도 없이, 굶은비 속에 우산도 없이 서있는 기본으로 성공의 기쁨만을 기대하고 노력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나, 우리 그리고 삼인침들....

(필자: U.W. 학부 2년생)

- 유 학 -



최 운 정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지 서너달이 지나도 결국 공부하고 싶은 미련을 못버렸거나 대학원 문턱에 일단 들어선 한국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생각해 보는 것이 유학이다. 때문에 XX 대학은 날이 갈수록 유학병 앓는 학생들로 대성황을 이루고, 대학 동창생, 선우배 기간에서도 위모하며 심심찮게 종로거리로 서성대다보면 평균해서 1년정도의 준비기간은 잠깐인듯 여겨진다. 그러나 모두가 처음 생각대로 유학을 온것은 아니다. 장학금의 은은 좁고 경제적 뒷바침이 결코 많은사람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원 경력에 비해 점수가 부진하다든가 온수사납게 시험에 몇차례 실패하고는 그동안의 헛뚜자를 뒤적이며 다시 직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예도 있다. 어쨌든 몇개월 애써가며 집안 식구들의 격려와 엄원속에서 서너가지 시험을 끝내고 무사히 유학길에 올랐다면 행운이다. 그러나 육간 여학생인 경우는 제 스스로가 유학을 망설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안전 제일주의 사고 방식때문에 백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내 경우도 그리 쉽지 않았다. 먼저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적인 사치를 위해서가 아님을 일차적으로 인식시킨후, 공부 계속을 위한 필요 승본 조건이 유학이라는 정도는 이미 달관한 부모께 내가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믿음만만 딸이라는 확신을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불어넣어 드려야만 했다.

그후 수십가지의 주의 사람을 경험한후 떠나와 유학생 활이 시작되었다. 본주한 서울에만 20여년을 살아왔기에 비오는날 한산한 인천바다만 보아도 쉽사리 갈려하는 나로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워싱턴주의 이곳은 마냥 길 갈 닦여진 한옥의 그림같은 시골모양 여겨졌다. 처음으로 집을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라는 걸 시작하면서 살기 위해 먹어야하고 공부하기 위해 건강해야만 한다고 부르짖으며 먹고살지 않을때도 의무적으로 필요양을 먹는 법도 익혔다. 개강 직전 학교를 돌아다니며 도서관 규모와 대학행정적의 운영을 보고 이 나라를 형성해온 거력을 느꼈다. 어느새 강의가 시작되었고 시각이 절반이라는 건미를 믿고있는 나는 점심시간후의 강의 시간 조차 두눈을 반짝뜨고 좀더 많이 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언어가 바뀐데다 그다지 강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난 비인간적인 숙제속에서 헤메다가 예습을 못해간남은, 총알처럼 제시간에들어오는 고수가 얄미워 지기도 했으니, 그러다 중간고사 첫곡목을 치르게 되었고 정말 암담한 기본이 되어버린 난 곧 붓길지고 하향길에 오르는 내 모습을 상상할정도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람살고 공부있다"라는 그럴듯한 명언과 선배님들의 위도또 한국인의 온근국 근기로서 기본을 회복 하였다. "꼭질 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국어학적 모순성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시험을 그르치고 처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도자기의 원산지인 스웨덴으로 유학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내 다정한 벗- 그녀는

불빛속에 녹아오르는 유학을 들여다 보며 오로지 흠만지는 입에서 생의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 한다- 의견지 답장에 시집부더가라고 학담(?) 하였으니 진정한 친구로서 제대로 추고한건지.

그러나, 이젠 별것아닌(?) 서울 생각도 덜하게 되었고 오조, 불안한 상태도 조금은 지나가 공부들 제대로 해보리라 마음 먹는다. 또한 이곳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에겐 한국보다는 훨씬 풍부한 재료와 우수한 교수진과 장한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믿으면서...

(필자; 수학과 대학원)

- 햇 병 아 리 -

오 승 랑

산과 들은 생의 망년을 만끽하는 못생들들의 화려한 잔치로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있는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벌써 대학생이된 나를 생각하니 꿈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벌써 이만큼 성장한것을 생각하니 나의 국민학교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그시절이 더 그리워지는것 같다. 어느날 국민학교 3학년초의 시간때 담임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너희들은 지금 10살이지만 금방 10년이 다가올것이다"라고, 한번 지나가면 돌아올수 없는 그날, 그 시각이 아깝고, 안타깝고 두려움밖에 나가지 않는것 같다. 아직도 고등학교 티를 벗어나지 못한것 같다. 대학 들어오기전 나대로는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제복도 파보고 합상 알날의 푸른 희망을 가지고 새롭고 보람있는 대학생살이 되기를 바랐다. 고등학교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막상 대학에 직접들어와 공부하니 1주일, 2주일, 한달, 두달...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나의 감정도 점점 더 매말라져 가는것 같고, 고독함과 쓸쓸함밖에 나가지 않는것 같다. 아직도 나의 마음은 인종간에 이질감 같은것이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어려운점이 많은것 같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대학에 있는 기간 만큼이라도 행복스런 생활을 충분히 해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타국 입지언정, 또 같은기가 으르는 동족이 많지 않을지라도, 자꾸 재미 붙여 노력해가면서 유용한 학창시절이 되기를 나 자신이 바란다. 대학은 인생 경험을 쌓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하고 건론과 학식을 보다 더 넓고 깊게 배우고 익혀 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갈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덧, 조국을 떠난지 3년, 고국을 향하여 뛰어가고픈 마음 간절하지만....

앞으로 한국인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과 끈기로 일하고 배워 미국사회의 나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나의 앞날의 번창을 위해 열심히 배워, 언제나 나의 만족한 삶을 느낄수 있는 그날을 기다릴수밖에 없을것 같다. 대학에 들어오니 제일먼저 선배님들도 부터 햇병아리라는 별명을 얻게되었다.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저는 아직 햇병아리 대상가로서 너무 모르는 점이 많을것이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귀엽게 봐주셔서 거의 미숙한 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는다. 서로 바쁜 생활이지만, 서로 자주 왕래해 주셔서 보다 넓은 고량이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후회 없는 대학생살이 되기를 나대모의 자부심을 가져본다. (필자; U.W. 학부 1년생)



-SKIING-



이 용 명

Skiing is one of the most exciting winter sports. Surrounding white mountains and the sparkling cold air has excited minds of many people. However, before we shussy down the slope, we should know few things about skiing.

Skiing is not like any other sport. For one thing, it is fun while you learn, from the very beginning. For another, there are more misconception about it than about any other sport.

Many non-skiers tell you skiing is dangerous. Maybe so, but do not think it is as dangerous as football or soccer. They also tell you skiing is expensive sport. But it need not be an expensive sport. Wisely purchased equipment, selected for qualities rather than good looks can last you many years. A good boot is most important item in skiing shopping list. Its function is to transmit the strength needed to turn, slow down or stop from the body to the ski, just as a slipping clutch does not produce efficient driving, a loose-fitting boot is hinderance of boots as on the market today.

When shopping for boots, look for double-boot construction, higher uppers for better ankle support a hinchd back for better forward flexing of the leg and padded inside with either foam or flow to minimize effects of the stiff outer plastic shell.

Owning a good pair of skis can save you lots of money and trouble. There are many excellent skis being made today. Their price will run from anywhere between \$80 to \$300. But you could get a fairly good pair of skis at a second hand shop for around \$50 including binding straps(binding is a gadget that is used to attach boots to the skis and strap is nothing more than string that help prevent loss of skis). When buying a pair of skis, you

should check for the length and the flexibility of skis. Length is important because, shorter skis are easier to maneuver than conventional long skis. The correct length of skis should not exceed not more than 15cm of your height.

The most common error in buying ski is to buy a pair which has two strong a chamber, so that the skier's weight does not flatten out the curve and get the whole ski on the snow. If skis have too much chamber, they will dig in at the tips and tails and you will be unable to maneuver. You should not be able to insert the card under the ski while standing on it if flexibility is correct.

The final item of equipment, that is essential, is a pair of ski poles. Their function is in part to assist balance and act as pivot in certain twins. A good pole length for modern skiing is to have the top of the hand grip rest easily an 4 or 5 inches below the armpit when the point is on the floor. Too long or too short poles can hinder your performance.

All I can say about the clothing is that wear something that is warm and comfrotable. Do not buy fancy cloths because of everybody else wears fancy cloth on the slope. Nothing is more ridiculous than a person wearing fancy cloth tumbling down the hill.

Now that snow has arrived and are in reasonably in good shape, lets get your skis and hit the slope. There are many ski areas in Washington State. About one hour drive from Seattle is Snoqualmi Summit. Price of ticket is \$7.50 and you can utilize it all day. This is strictly for the beginners and intermediate skiers. The runs are not too steep like Stevens Pass or Crystal Mt. and the snows are generally well packed. Price of tickets are the same, but it provides more difficult challenge to the skiers.

Among my peers, there are lots of skiers and those who want to be a skier. It could be nice to have a ski club in which we can exchange ideas and taste the joys of skiing together.

(필자: U.W. 학부 3년생)

- 학생회 소식 -

◇ 78년도 학생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0월 6일 오후 7시 부터 HUB 에서 개최된 금년도 총회는 지난 한해 동안 학생회일을 맡아 수고 해주신 김상태 구회장의 77.-78년도 학생회 재정 및 활동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신입생 소개와 재학생 소개가 있을 무렵 신입회장으로 정종환 학생을 선출하고 신입회장의 사퇴로 학생회 운영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그리고 운태관도장에서 신입생 환영회 및 친목회를 열어 학생회원들간의 친선도모의 시간 가졌다.

- 신입 회장단 및 임원 -

- 회장: 정종환
- 부회장: 이석보, 이혜숙
- 총무: 오인식
- 운영위원: 김현내, 서근택, 이규명, 이기창, 이상인, 장대수, 정요한
- 편집위원: 김공미, 오인식, 이기숙, 이진숙

◇ 고전음악 강연회 성공리에 마치다

학생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전 국립극악원 원장이시며 국악계의 최고 인간 문화재이신 김기수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고전음악 강연회 및 감상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150여명 가량의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하셔서 다시금 우리 문화의 발자취를 되새겨 볼수있는 뜻깊은 기획이 되었다. 특히 감사님 초빙에 노고가 크셨던 박현린(음악대학원 재학중) 학생께 감사드리며 그의 일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동정

- 강서준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강서준 학생은 연구차 영국 Cambridge 대학에 가 계시다가 지난 8월 결혼차 귀국하셨다. 지금은 북고하여서 Northgate 부근에서 신혼살림.
- 변재관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께서는 지난 6월 26일 득남 (우석군)
- 박현숙, 이선재 학생 간포대학에 입학
- 신정수 지난 7월 초 파축을 밝힘
- 유대식 학생의 따님인 소녀 Violinist 유경학양의 독주회가 10월 6일 Seattle Concert Theatre 에서 성황리에 열리다.
- 윤희정 한국에 귀국하셨다 논문 (Urban Planning) 마치기 위해 북고
- 김의현 지난 9월 파축 밝힘.

- 신년도 학생회 사업계획 -

1. 학술 세미나 개최 (겨울 학기중)
2. 한국 영화 감상회 (겨울 학기중)
3. 삼일절 기념 행사 및 야유회 (3월중)
4. 체육 대회
5. 학생 작품 전시회
6. 광복절 기념 행사
7. 학생 복지 발행 (한학기 1회)

◇ 주미한국 대사관 교육관 SEATTLE 방문

Washington D.C. 에 있는 박희규교육관께서 지난 12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씨아플을 방문하셨다. 또한 서두수박사님과 박암선생님 과 김형진한인회 회장께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학생회 임원진은 교육관을 만나뵙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학생들의 문제점과 장래에 관한 여러가지 토론의 기획을 가졌다.

◇ SEATTLE TIMES 에 함의문 전달

지난 10월 15일자 Seattle Times 에 게재된 Rick Anderson 칼럼 한국인에 대한 모독적인 기사에 대하여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강력한 함의문을 보냈다. 특히 함의문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유대식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서명운동등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이석보, 이기창, 이규명 외 여러학생께 감사드립니다. 함의문 전문을 참고로 게재합니다.

GROCERY STORE

김치·떡

**한국집**

KOREAN FOOD PRODUCTION

514 6th Ave. S., PHONE:  
Seattle, Wa 98104. 682-2992  
(우와지마야 건너편)

Editor-in-Chief  
The Seattle Times  
P.O. Box 70  
Seattle, WA 98111

Dear Sir:

We, the undersigned members of the Washington Student Association, strongly feel that Rick Anderson, the Seattle Times staff columnist, owes a public apology to the Korean communities in Seattle and Tacoma for painting in his article of October 15, 1978 a humiliating picture of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with his rhetorical tricks of cheap sensationalism. Rick Anderson is responsible for publicly giving a false impression that Koreans residing in the area are somehow all involved in a "subtle war of extortion," which "rarely rises above the silent nodding and money exchanges in dark corners of restaurants, sauna baths and nightclubs." The inexcusably gross error Anderson makes is the fact that while the number of individuals involved in the crimes committed is only about half a dozen (as far as it is humanly possible to figure out from the misty cloud of stereotyping and racial implications in his article), which amounts to no more than four hundredths of one per cent of the 15,000 Korean population here, Anderson blows up things to make it sound like a big organized crime ring, with which entire population is made to appear to be involved through the "Sicilian vow of silence-Omerta." Most of us have never even seen those "restaurants, sauna baths, and nightclubs," and we are stunned by the way in which Anderson furtively and slanderously links us by association to some imaginary territorial protection operation.

Anderson entitled his so-called "report" "Koreans' Dispute Turning Violent Here." Grabbing the reader's attention with a sense of alarm with a heading so broad and general that it impresses the reader as though any number of Koreans, or all Koreans, for that matter, might be involved in some kind of explosive communal turbulence, Anderson opens his "report" by portraying a scene of "war of extortion," where "The

shootings, the fighting, the shakedowns, as usual have to do with money." He thus establishes his context of over-widening implications only to go on to insinuate Koreans in general by solemnly announcing that "Some of the Koreans have it (money), some of the Koreans want it," as if it were illegal for Koreans to "have" or "want" money. Here he lumps all Koreans into his "war of extortion" without showing a single trace of effort on his part to restrict his context to the scene of the actual crimes he is supposedly reporting, for what Koreans do not have money however little or much the amount, and who do not want it? Now this is the lead of his so-called "frank and honest reporting" of the three shooting incidents occurred at particular times at particular places involving a certain number of Korean individuals.

The ways in which Anderson phrased his heading and in which he wrote the lead, which, by the way, is supposed to serve as a summary of his "report" for many readers who do not have the time to read the entire story, reveal only one thing, that is, Anderson's intention to prejudice his readers against the Korean communities by creating a false impression that there is something nasty, something secretive, something criminal going on, not at particular places involving particular persons, but in some unspecified "territory" of the Seattle-Tacoma area involving all Koreans.

This is why we tremble to think of the possible effects that Anderson's article might have had on the great many readers of the Seattle Times. We are extremely concerned with the unfounded suspicion and distrust which Anderson's article must undoubtedly have caused to be in the minds of the public toward a growing community of peace-loving, law-abiding and hard-working people who take pride in serving the Seattle-Tacoma area in their various capacities.

Anderson's malicious intent to prejudice his readers against Koreans also comes through loud and clear not only in the distasteful content of his quotations but in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those quotations. The quoted sentence that brings the first section of Anderson's article to a sensation-

ally impressionistic end reads: "They (Koreans 've been called the 'nigger' of the Orient." Anderson concludes his "report" by quoting a policeman who states the "It's reasonable to say that 'omerta', the vow of silence, does not belong strictly to the Sicillians. Whatever it is that's happening, the've decided to settle it among themselves." These are admittedly not Anderson's own words since they are conveniently placed in quotation marks as remarks made by two souls who should have known better. We forgive them, for they probably did not know that their remarks were to be exploited to bring about the effect of stereotyping all Koreans into an organized crime ring. These words may not be Anderson's, but his. And they reveal Anderson's hatred not only against Koreans but also, by association, against Blacks, and Italians and Orientals in general.

We hate crime and violence. We are in full support of the Seattle Times' editorial policy of "frank and honest reporting." Crimes of violence should be duly punished and accurately reported,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criminals. But Rick Anderson's article on the three shooting incidents involving several individual Koreans falls far short of "frank and honest reporting" which it is defended to be. We find it highly discriminating against Koreans as a race because the hatred expressed in Anderson's article does not seem to be against the crimes committed but rather willfully directed against the entire community of Koreans.

Hiding behind the rhetorical tricks and sneering at Koreans behind the slyly arranged quotations does not justify Anderson's act of prejudicing a great number of readers against the Korean community, which is none other than an act of racial discrimination. Rick Anderson must publicly apologize for his irresponsible act.

## 대외소식

### 한인회 소식

#### 7.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단선출.

한인회는 지난 11월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단 및 이사진을 선출 하였다.

회장: 조성욱

부회장: 김정부, 이형상

신임이사: 김현중, 안병용, 조요한

#### 4. 1978년 아리랑의 밤

한인회 연례행사인 아리랑의 밤을 올해도 다음 과같이 개최 예정으로 학생회원의 다수 참석을 바란다 고 합니다.

대: 1978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와싱턴 프라자 호텔 Ball room

### 동문회 소식

#### 78년도 성균관대학 동문회

금년도 성균관대 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일시: 12월 30일 (토) 오후 6시

장소: Fareast Restaurant (N. 201st & Aurora)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람.

회장: 구범희 778-1267

부회장: John Lee 852-4481

타코마 지역

조영욱 474-2546

### 주소변경

중앙일보사의 주소와 전화 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새주소 2684 S.W. 333 Pl.

Federalway, WA 98003

전화번호 838-3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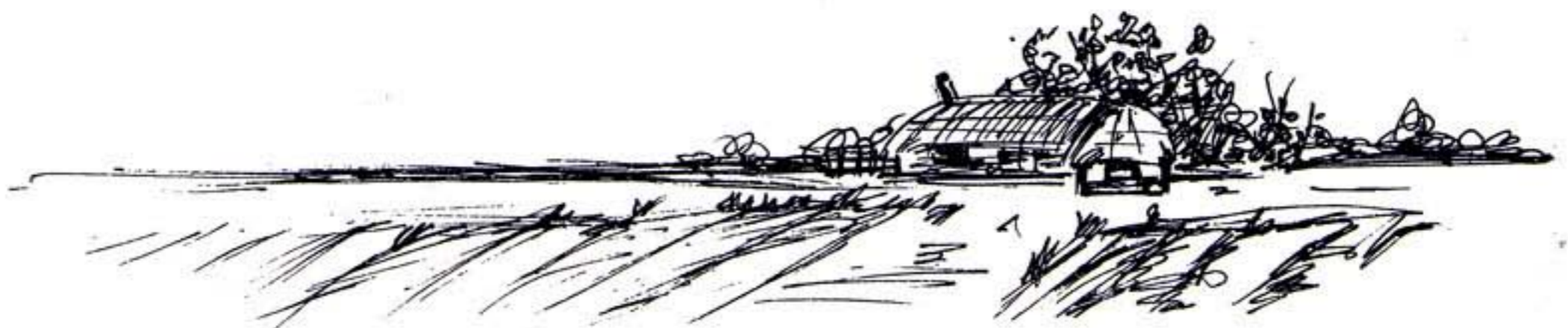
### 교회소식 (대학생 예배)

시아틀 타코마 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남정숙박님의 인도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이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소: U.W. 학생회관 (Agape House; 전 제일교)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전화: 365-5333

"PRAISE THE LORD"



# 학생회 연말잔치

어느덧 저물어 가는 1978 년도의 뜻을 좀더 새롭게 하며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학생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학생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말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오니 가족동반하여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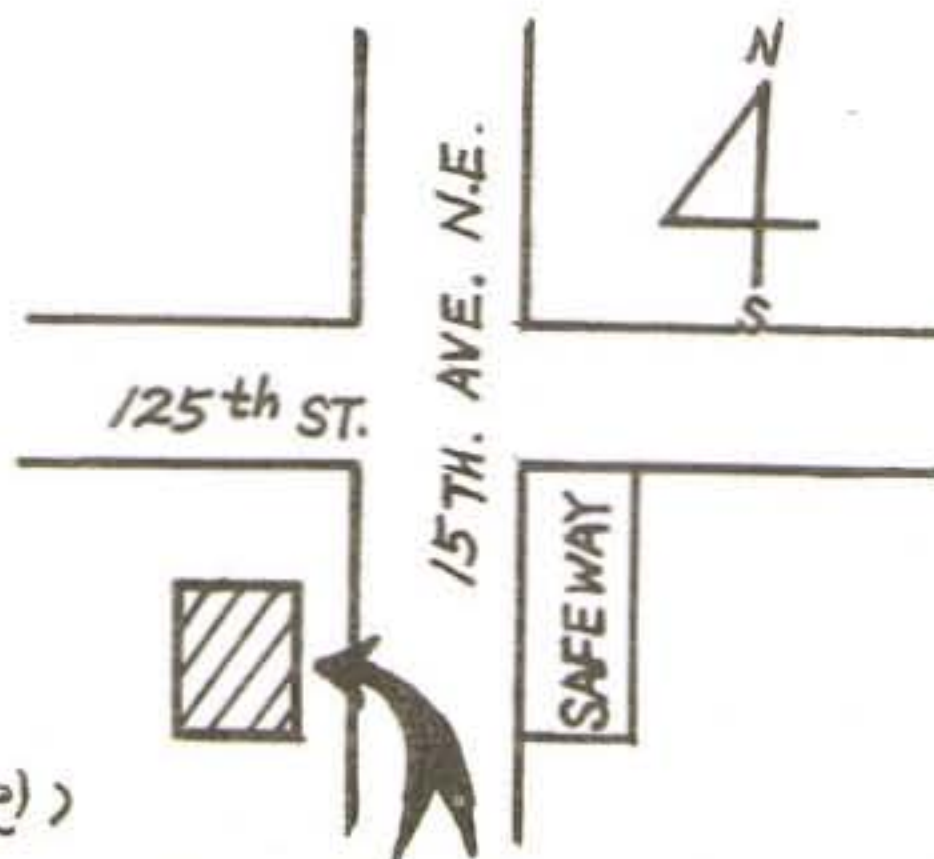
장소 : BLACKBURN MEMORIAL HALL  
 주소 : 12327 15TH AVE. N.E.  
 전화번호 : TEL. (206) 362-9868  
 일자 : 12월 28일 (목) 하오 6시 30분  
 회비 : 성인 1인당 \$ 3.00  
 부부동반시 \$ 5.00

저녁식사는 한식으로 참석자 전원을 모실것이며, 음료수 및  
 다과등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것 입니다. 모두 함께 즐길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과 오락, 그리고 음악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TICKET 구입방법

- 운행진행상 될수있는 한 미리  
 TICKET 을 구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구입문의 : TEL. 525-1162  
 (이 상 인)



- 신 책 도서 목록 -



- 308748 사람의 실천 : 대한일보 사설집  
대한 일보사, 1971
- 308751 권규태 고령 속오의 연구  
전금사 1976
- 308755 허동파  
한국의 자수 삼아용 출판사
- 308758 이경임  
이조 후기의 서민 여성 장식에 대한 고찰  
수도 여대 1975
- 308760 이 담주  
한국 자연 사의 연구 1977
- 308766 자주성 확립과 민족 중흥  
현대 정치 연구회 1977
- 308767 김희경  
아한 공숙의 부나비 1977
- 308768 김선경  
이국의 묵언 1977
- 308769 강 위조  
일본 동치아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 기독교 소회 1977
- 308770 현대 수필 110인집  
한국수필 문학회  
세은 문파사 1977
- 308772 장사훈  
한국 전통 무용 연구
- 308773 현대 좌담 1975
- 309775 온병태 조선조 활가고 대명 활자  
연세대학교 도서관 학과 1976
- 308786 김상헌  
민족의 거담 1977
- 308789 이상욱  
한국의 역사 1-13권
- 308790 백만인의 오리 백곡(현대여성 생활 백곡))1975
- 308791 한국 근대 미술 연구회  
이당 김은도 국제 문파사 1978
- 308805 한국여류 문학전집
- 308759 한국 관보 제도사  
유상근
- 308798 오영권  
시집가는날

그동안 여러곳으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한 학생 회원 명단 및 주소록이 이번 피지와 함께 실었습니다. 혹시 회원 명단에 빠졌거나, 전과 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생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hn, Kee Soon : 2325 N 116st  
Seattle, WA 98133  
364-0092
- Baag, Chang Eob : 317 Mercer Hall  
1101 NE Campus Parkway  
Seattle, WA 98105  
543-8317
- Baik, Kwang Hyun : 1112 Terr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1112
- Bhang, Hyoung Chan : 6381 NE Radford Dr. #88  
Seattle, WA 98115  
523-4070
- Byon, Jae Han : 3710 11th Ave NE #306  
Seattle, WA 98105  
632-6643
- Chang, Hyon Soo : 13045 28th NE  
Seattle, WA 98125  
367-1187
- Chang, Kyung He : 6039 45th SW  
Seattle, WA 98136  
935-4386
- Chang, Tae Soo : 13045 28th NE  
Seattle, WA 98125  
367-1187
- Chang, Hyung Soo : 13045 28th NE  
Seattle, WA 98125  
367-1187
- Chang, Yong Ju : 31338 31st SW  
Federal Way, WA 98003
- Chang, Yong Mi : 31338 31st SW  
Federal Way, WA 98003
- Chee, Yong Hee : 8215 NE 115th Place  
Kirkland, WA 98033  
822-4979
- Cho, Chong Han : 6321 NE Radford DR. #203  
Seattle, WA 98115  
524-0758
- Cho, Hee Kyong : 6321 NE Radford Dr. #203  
Seattle, WA 98115  
524-0758
- Cho, Oai Song : 10718 Exeter NE  
Seattle, WA 98125  
365-8392

Cho, Sung Sil : 4105 Brooklyn Ave NE #105  
Seattle, WA 98105  
633-2609

Choe, Chul Soon : 857 McMahon U.W.  
Seattle, Wa 98105  
543-7857

Choe, Won Ho : 4120 Brooklyn NE  
Seattle, WA 98105  
632-8972

Choi, Tong Kyu : 211 Mercer Hall U.W.  
Seattle, WA 98105  
543-8211

Choi, Dong Whan : 6134 NE Radford Dr. #97  
Seattle, WA 98115  
527-1754

Choe, Kyong Suk : 15847 37th Ave NE  
Seattle, WA 98155  
365-4296

Choi, Young Jung : 5010 18th NE  
Seattle, WA 98105  
522-9853

Choy, Anna : 7551 41st Ave NE  
Seattle, WA 98115  
524-6012

Chui, Craig : 2856 60th NW  
Seattle, WA 98107

Chu, Alice : 6254 12th Ave NE  
Seattle, WA 98105  
523-5750

Cho, Bong Sue : 6254 12th NE  
Seattle, WA 98105  
523-5750

Chun, Angela Myung Sun : 1729 NE Brockman Pare  
Seattle, WA 98125  
367-2727

Chun, Doo Young : 115 Mercer Hall  
Seattle, WA 98105  
543-8115

Chung, Eun Sook :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542-4391

Chung, Jong Hwan : 4542 18th NE #36  
Seattle, WA 98105  
522-0247

Chung, Myong Kyu : 4733 17th NE  
Seattle, WA 98105  
524-2206

Chung, Sung Sook : 4518 20th Ave NE  
Seattle, WA 98105  
525-1258

Chung, Yohan :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542-4391

Ha, Mae Hyun : 6305 NE Radford Dr.  
Seattle, WA 98115  
527-1337

Han, Hyung Keun : 6307 NE Radford Dr. #66  
Seattle, WA 98115  
522-2340

Han, Myung Shin : 4005 15th Ave NE #104  
Seattle, WA 98105  
632-9223

Hasagawa, Tsuyoshi : 4538 18th NE #38  
Seattle, WA 98105  
524-3934

Huh, Shin : 14067 23rd Pl. NE  
Seattle, WA 98125  
365-6132

Hwang, Che Young : 14555 30th Ave NE  
Seattle, WA 98155  
362-6748

Hwang, Min : 7235 NE 155th  
Bothell, WA 98011  
488-2189

Jang, Kyong Hee : 6039 45th SW  
Seattle, WA 98136  
935-4386

Jo, Mi Jeoung : 1120 NE 43rd #310  
Seattle, WA 98105  
632-5328

Jo, Il Heun : 1120 NE 43rd #310  
Seattle, WA 98105  
632-5328

Kang, Sung C. : 13332 22nd NE  
Seattle, WA 98125  
362-7684

Kim, Byung Sik : 2309 N 161st  
Seattle, WA 98133

Kim, Chang Je : 206 Terr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0206

Kim, Charles : 12636 82nd Ave So  
Seattle, WA 98178

Kim, Christine Jean : 4312 37th NE  
Seattle, WA 98105  
524-7777

Kim, Chul Joon : 17318 9th Ave NE  
Federal Way, WA 98003

Kim, Chungmee : 6225 Sycamore Ave N  
Seattle, WA 98107  
784-1310

Kim, Eun Sook : 9218 Dibble Ave NW  
Seattle, WA 98117

Kim, Gong Mi : 657 Lander Hall U.W.  
Seattle, WA 98105  
543-0657

Kim, Hae Sun : 5505 Brooklyn NE  
Seattle, WA 98105  
525-1174

Kim, Hak Soo : 611 McMahon Hall U.W.  
Seattle, WA 98105  
543-7661

Kim, Hong Ki : 3775 15th NE #101  
Seattle, WA 98105  
633-5980

Kim, Hye Wha : 3610 SW Cambridge St.  
Seattle, WA 98126  
938-0838

Kim, Hyun Bom : 5505 Brookly Ave NE  
Seattle, WA 98105  
525-1174

Kim, Hyun Tae : 5505 Brooklyn NE  
Seattle, WA 98105  
525-1174

Kim, Hyung Keun : 329 NW 185th  
Seattle, WA 98125  
542-1819

Kim, Hyong Sik : 950 Anacortes Ct. NE  
Renton, WA  
255-0708

Kim, Inae : 914 E Jefferson  
Mail Box 312 #1210  
Seattle U. WA 98122  
626-6493

Kim, Jee Soon : 4105 Brooklyn NE #105  
Seattle, WA 98105  
633-2609

Kim, Jin Joo : 329 NW 185th  
Seattle, WA 98125  
542-1819

Kim, Jong Ho : 7023 31th Ave NE  
Seattle, WA 98115

Kim, Jung Jae : 323 N 84th St.  
Seattle, WA 98103

Kim, Mi Gyeong : 6502 38th Ave SW  
Seattle, WA 98126  
935-1861

Kim, Sae Yung : 605 McMahon Hall U.W.  
Seattle, WA 98105  
543-7607

Kim, Sang Tae : 3827 12th NE #7  
Seattle, WA 98105  
632-0140

Kim, Shin Hee : 833 Terr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0833

Kim, Shin Hyung : Xavier Hall  
1110 E Spring, Seattle U.  
Seattle, WA 98122  
623-6310

Kim, Shin Il : 431 Terr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0431

Kim, Sil Dong : 8215 NE 115th Pl.  
Kirkland, WA 98033  
822-4979

Kim, Suk Ja : 23010 42nd Pl W  
Mountlake Terrace, WA 98043  
775-9975

Kim, Sung Ae : 336 NW Richmond Beach Road  
Seattle, WA 98125  
542-3642

Kim, Sung Jeong : 4135 Brooklyn NE #319  
Seattle, WA 98105  
632-3844

Kim, Sung Ku : 9223 9th NW  
Seattle, WA 98117  
784-1301

Kim, Sung Soo : 4111 NE 115th  
Seattle, WA 98125

Kim, Ta Jin : 311 McMahon U.W.  
Seattle, WA 98105  
543-7311

Kim, Ui Hun : 1115 So Atlantic St. #17  
Seattle, WA 98134  
322-3345

Kim, Yong Soo : 13308 28th Ave NE  
Seattle, WA 98125  
362-3447

Kim, Young Hee : 11919 Lakeside Ave NE  
Seattle, WA 98125  
365-4539

Kim, Young Sil : 4005 15th NE #301  
Seattle, WA 98105  
634-2126

Kim, Yun Hwa : 3610 SW Cambridge St.  
Seattle, WA 98126  
938-0838

Ko, Jang-Mie : 1520 N 122nd St.  
Seattle, WA 98133  
365-0852

Ko, Jang Woo : 1520 N 122nd  
Seattle, WA 98133  
365-0852

Ko, Jang Wook : 1520 N 122st  
Seattle, WA 98125  
365-0852

Ko, Pil Soo : 181 Mercer Hall U.W.  
Seattle, WA 98105  
543-8181

Ko, Young Chan : 3720 12th NE  
Seattle, WA 98105  
632-4533

Koo, Hyun Chul : 17304 12th Ave NE  
Seattle, WA 98125  
367-2274

Kung, Daniel : 17125 Fremont Ave N  
Seattle, WA 98125  
542-4001

Kwon, Hyok Joo : 355 Lander Hall  
Seattle, WA 98105  
543-0355

Lebar, Kap Soon : 507 11th Ave #2  
Seattle, WA 98121  
324-9778

Lee, Bong Chul : 917 James St. #31  
Seattle, WA 98104  
623-7840

Lee, Byung Guen : 3999 Union Bay Circle NE  
Seattle, WA 98105  
524-0811

Lee, Dong Won : 14051 32nd Ave NE #8  
Seattle, WA 98125  
365-9673

Lee, Hae Kyung : 1166 McMahon Hall U.W.  
Seattle, WA 98105  
543-7168

Lee, Hyun Soon : 2723 107th NE  
Bellevue, WA 98004

Lee, Hyung Yong : 404 NE 153rd  
Seattle, WA 98155  
783-6975

Lee, Ick Whan : 3768 University Way NE #126  
Seattle, WA 98105  
632-6352

Lee, Jin Sook : 4542 18th NE #24  
Seattle, WA 98105  
523-5556

Lee, Jung Bok : 1702 11th Ave So #310  
Seattle, WA  
329-4525

Lee, Keun Jai : 4500 15th NE #106  
Seattle, WA 98105  
632-9328

Lee, Ki Moon : 5022 Calf. Ave SW #2  
Seattle, WA 98126  
937-3529

Lee, Kyong Gu : 14043 20th Ave NE  
Seattle, WA 98125  
362-2811

Lee, Kyu M. : 6803 24th NE #2  
Seattle, WA 98115  
633-5754

Lee, Nam Chul : 4542 18th NE #35  
Seattle, WA 98105  
524-2996

Lee, Ok Wha : 3635 Sunnyside N  
Seattle, WA 98103  
633-2978

Lee, Sang Hoon : E1111 Columbia  
Mail Box 259 #613 Seattle U.  
Seattle, WA 98122

Lee, Sang In : 5011 Brooklyn Ave NE #2  
Seattle, WA 98105  
525-1162

Lee, Shin Ja : 3825 170th SW  
Lynnwood, WA 98036  
745-0993

Lee, Suk Bo : 18827 89th Ave W  
Edmonds, WA 98020  
775-8009

Lee, Suk In : 18827 89th Ave W  
Edmonds, WA 98020  
775-8009

Lee, Sungi : 549 NE 80th St.  
Seattle, WA 98115  
527-1450

Lee, Sun Hang : 4012 Union Bay Cir. NE  
Seattle, WA 98105  
524-6707

Lee, Elaine Sung Hee : 5011 Brooklyn Ave NE #2  
Seattle, WA 98105  
525-1162

Lee, Sung Hee : 7011 23rd Ave NE  
Seattle, WA 98115

Lee, Won Hee : 7011 23rd Ave NE  
Seattle, WA 98115

Lee, Yaug Ja : 30824 18th Ave S #25  
Federal Way, WA 98003

Lee, Yong Myoung : 6803 24th NE  
Seattle, WA 98115  
525-2261

Lee, Yonae : E1111, Columbia St.  
Mail Box 466 #931 Seattle U.  
Seattle, WA 98122

Lee, Young Hwan : 4135 Brooklyn NE #319  
Seattle, WA 98105  
632-3844

Li, Guey R. : 1702 11th Ave S  
Seattle, WA 98134

Min, Seung Hong : 120 11th Ave  
Seattle, WA 98122

Nam, Mi Kyung : 5263 15th NE #302  
Seattle, WA 98105  
523-1449

Nam, Myong Suk : Xavier Hall  
1110 E Spring Seattle Univ.  
Seattle, WA 98122

O, Charlie : 13515 36th Ave NE  
Seattle, WA 98125

Oh, In Shik : 3753 University Way NE #7  
Seattle, WA 98105  
632-2801

Oh, Seung Hyang : 146 S 112st  
Seattle, WA 98168

Oh, Yun Ho : 13515 36th Ave NE  
Seattle, WA 98125  
362-8433

Om, Kyong O. : 5123 46th Ave NE  
Seattle, WA 98105

Paik, Hyon Ok : 7311 31st Ave SW  
Seattle, WA 98126  
935-0571

Pak, Kyoung Dug : 8714 242nd St. SW  
Edmonds, WA 98020

Pak, Song Ja : 329 N 188th  
Seattle, WA  
542-4528

Park, Chang Won : 1425 S Jackson  
Seattle, WA 98144

Park, Heung Soo : 4542 18th NE #14  
Seattle, WA 98105  
522-9118

Park, Hun Lyn : 3775 15th Ave NE #307  
Seattle, WA 98105  
633-2183

Park, Hyo Shin : 914 E Jefferson  
Mail Box 394 #1007 Seattle Univ.  
Seattle, WA 98122  
626-5495

Park, Hyun Min : 4140 11th NE  
Seattle, WA 98105  
632-4288

Park, Hyun Suk : 4140 11th NE  
Seattle, WA 98105  
632-4288

Park, Jung Shin : 12293 Corliss N  
Seattle, WA 98133  
365-8568

Park, Kun H. : 3775 15th Ave NE #119  
Seattle, WA 98105  
632-0310

Park, Kwang Won : 1425 S Jackson St.  
Seattle, WA 98144

Park, Woong Su : 4216 180th SE  
Bothell, WA 98011  
485-8913

Pier, Kye Shik : 1814 N 166th St.  
Seattle, WA 98133

Piparo, Richard : 109 McCart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5109

Rhee, Joon Pyo : 4111 11th NE #3  
Seattle, WA 98105  
633-4843

Ro, In Sok : 915 S Washington #392  
Seattle, WA 98104

Ro, Jung Suk : 915 So Washington #392  
Seattle, WA 98104  
682-8712

Ryu, Ae Kyong : 2138 N 178th  
Seattle, WA 98133  
362-2510

Ryu, Jae M. : 2138 N 178th  
Seattle, WA 98133  
362-2510

Shin, Evi Soon : 3760 Univ. Way NE #108  
Seattle, WA 98105  
633-4012

Shin, Jung Soo : 9223 9th NE  
Seattle, WA 98117  
784-1301

Shin, Mi Kyung : 9223 9th NE  
Seattle, WA 98117  
784-1301

Sim, Chong Kil : 1205 Stewart St. #214  
Seattle, WA 98101  
623-6997

So, Chang Ho : 908 Terry Hall U.W.  
Seattle, WA 98195

So, Jung Ran : 33759 31st Ave SW  
Federal Way, WA 98003

So, Kwang Son : 6935 Delridge Way SW #302A  
Seattle, WA 98106  
767-7983

Som, Moon Sik : 1624 N 45th  
Seattle, WA 98105  
632-7818

Soo, Jin Young : 6253 NE Radford Dr.  
Seattle, WA 98115  
525-8656

Suh, Keun T. : 12046 12th Ave NE  
Seattle, WA 98125  
363-7761

Suhr, Young Min : 1811 Summit Ave #110  
Seattle, WA 98122

Whang, Chong : 23 West Galer Apt 108  
Seattle, WA 98119  
284-7854

Won, Yong Joon : 13327 22nd Ave NE  
Seattle, WA 98125  
364-3133

Yae, John : 110 Hagget Hall U.W.  
Seattle, WA 98105  
543-4110

Yang, San Hee : 2525 14 Ave S #526  
Seattle, WA 98105  
325-0231

Yang, Seung Ran : 1169 McMahon Hall U.W.  
Seattle, WA 98195  
543-7169

Yi, Barbara : 12435 SE 258th St  
Kent, WA 98031

Yi, Hak Chae : 4140 11th Ave NE #38  
Seattle, WA 98195  
634-1092

Yi, Hye Suk : 5512 15th Ave NE #202  
Seattle, WA 98105  
522-7336

Yi, Hyung Keun : 6935 Delridge Way SW  
Seattle, WA 98106  
762-2351

Yi, Ki Chang : 501 N 104th  
Seattle, WA 98133  
783-0472

Yi, Ki Sook : 501 N 104th  
Seattle, WA 98133  
783-0472

Yi, Kyoung Ae : 32315 11th PI So #98  
Federal Way, WA 98003

Yi, Tong Bok : 1107 Terry Hall U.W.  
Seattle, WA 98105  
543-1107

Yoon, Bong Yong : 217 Austin Hansee Hall U.W.  
Seattle, WA 98195  
543-2929

Yoon, Hee Jong : 3715 Brooklyn NE  
Seattle, WA 98105  
634-2132

Yoon, Kil Yong : 14019 32nd Ave NE  
Seattle, WA 98125  
365-0977

Yoon, Young Sook : 1309 13th So #6  
Seattle, WA 98144  
324-0453

Yu, Dae Shik : 3760 University Way NE #106  
Seattle, WA 98195  
633-5165

## 편집후기

- 학기말을 앞두고 칠야삼일, 첫 아기를 갖는 새 아버지와의 심경과도 같다. 혹시 발까락이 하나 없을까 하고... 비록 많지 않은 산고였지만 새 아기의 탄생과 멋진 장래를 축복합니다.
- 기본이 삼삼하다고 할까? 아니면 개운하다고 할까?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내던진 기분이다. 몇일동안 타자기와 검은 편들과 씨름하면서, 마치 무슨 역적모의라도 하듯이, 몇명의 편집위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우며, 때로는 피로때문인지 화도냈다가, 의무적인 임무(?) 때문인지, 아니면 고생해서 완전완성된 이 훌륭한 작품을 빨리 자랑해보고 싶다는 심정때문인지... 입가엔 쓰디쓴 웃음들을 띄우고, 일하다가 아침이론 시원한 배추국을 먹을때의 그 기분은 우리 편집위원만이 맛본 기쁨이라고 할까... 담배연기와 된장국 냄새, 그리고 새벽의 그 신선한 공기가 서로 얽힌 분위기 속에서 마치 힘과 용기라도 주듯이, 자랑스럽게 태어난 "제 14 호" 학생회지... 고생끝의 보람이라고 할까?
- 좀더 깊고 양적으로 취지를 만들어 보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어딘가 미숙한점을 부정할수 없다. 편집에대한 특별한 기술도 없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이나마 우리 학생회를 대표할수 있는 취지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기쁨을 감출길 없다.
- 대외적으로는 한인 사회가, 안으로는 우리의 학생회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찾아 우리 각자가 좀더 반성해보고 생각해 볼수있는 기획을 만들어 보자는게 편집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숫자, 논단등이 그 하나의 시도였다고 볼수있다.
- 학부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앞으로 전공을 택하는데 많은 의문을 안고있는 학부학생들의 심정을 감안 전공 순례란을 만들었다.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사진관으로 본격적인 취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한 학생회장의 노고를 특기한다. 학기말 시험을 앞둔 편집진도 시간을 쪼개어야하는 고충이 많았다. 끝으로 귀중한 글을 보내주신 서두수박사님, 박건홍, 최재원, 이영인학생, 특별기고를 보내주신 이형상씨, 신착도서관을 만드는데 협조해주신 최운한씨,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칠야로 타자를 맡아 수고해주신 김의현학생께 감사사를 드린다.

(O.Y.)



원고모집

다음과 학생 피지에 실릴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학생 피의 피원, 비피원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글을 보내주시는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고를 바랍니다.

• 논단: 학생사피, 고포사피에 관한 문제, 또는 국내 국외의 정치, 경제, 사피, 문화, 즉학, 기술에 관한 의견 또는 토론.

• 연구 노트 또는 독후감

• 수필, 수상,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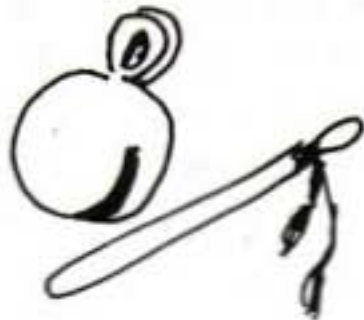
• 전공 순례

• 학생부인 유감

• 신입생 소감

• 시

• 기타 자유 주제글



# 동양식품은, 값이 제일 싼 식품점이지요.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우편 편의상 한인회 우편 permit 을 사용합니다. 법적상의 이유로 한인회주소로 발신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회 주소>

Washington State Korean Student Associ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Box 123 Room 300 Hub  
Seattle, WA 98105

KOREAN FOOD

## Lee's Market

763 S. 38th 475-6128  
TACOMA, WA 98409



525-9222

### 와싱턴주 한국학생회 회지

제 14 호

편집인 김 공 미  
오 인 식  
이 기 속  
이 진 속  
이 동 복

발행년월일 1978년 12월

발행인 정 종 화

# 김철준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We guarantee tomorrow today.

주소 : 4121 SEA-FIRST BLDG.  
 SEATTLE, WASH. 98154

# 헐리징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 열가봉사
- 국내외  
 항공권 판매  
 (월부)
- 가족초청 및 제반  
 여행수속 대행



(206) 523-7057

9002 12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15

# 101 AUTO REPAIR

FOREIGN & DOMESTIC  
 NAM-IL HO



9:00AM - 7:00PM DAILY  
 9:00AM - 2:00PM SATURDAY

- BODY SHOP 전문
- 차체 안전, 보증수리
- 무료 견적
- 보험 수리시 문의 환영
- 한국인 특별 우대
- 사고즉시 연락하면 토잉비 일부 공장부담

BUS. 525-5778  
 RES. 789-2655

1009 AURORA N. SEATTLE, WA. 98133

Date Due

OCT 17 1980

EAST ASIA

n

:

4

5

6

7

7

8

8

9

9

10

11

15

Lib. 65

JONG HWAN CHUNG

DOO SOO SUH

HYUNG SANG LEE

HYE WHA KIM

SAE YUNG KIM

YOUNG JUNG CHOI  
SEUNG HYANG OH

YONG IN LEE

JUNG RAN SO

YONG MYOUNG LEE

EDITORS

YUN WHAN CHOE

## The Journal of

the Washington State Ko

no. 14

Table of Co

FOCAL POINT

FORUM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Student Association

POETRY

Autumn

MESSAGE OF INAUGURATI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OO CHON COLUMN

Lack of Logic

SPECIAL CONTRIBUTION

Be a genuine person

POETRY

Someday

ESSAY

Idle Gossips

NEW COMER'S THOUGHTS

Studyng of Road  
Freshmen

WHAT TO STUDY IN MY 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POETRY

Pray

HOBBY

Skiing

NEWS

NEW BOOKS